

# 외 문 학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2015 · 봄호 · 통권 제19호



표지화 | 배소현 작  
SoHyun Bae:  
rice-paper and pure pigment on canvas



## 해 외 문 학

.....  
본지는 해외동포 문인들의 문학작품 창작을 돕는 대표적인 문예지입니다.

## 「한미 현대시」 앤솔리지 출판의 의미

김 경 년

(시인 번역가 UC버클리대 교수)

「해외문학」은 2013년에 참으로 큰일을 해내었다. 뉴욕의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스(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출판사와 공동으로 「한미 현대시」 영문 제목 *Bridging the Waters*라는 시 앤솔리지를 출판한 일이다. 현역 미국 시인 20명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시인 15명, 미주한인 시인 24명, 한국시인 16명 등 총 75명의 시작품 등이 수록된 방대한 시 선집으로 한글과 영문 이중 언어로 출판된 책이다. 500쪽이 넘는 데다 각 시인마다 한 페이지의 사진과 약력이 소개 되고 작품 두 편이 각기 영문과 한국어로 인쇄되어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획과 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2년여에 걸친 원고 수집과 번역, 편집, 타일 세팅, 교정, 표지 디자인 등등 그 밖의 모든 제작 과정에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 끝없는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조운호 시인(해외문학 발행인)과 스텐리 발칸 시인(CCC 출판사 사장) 두 분의 열정과 비전이 이 사업을 이루어 낸 두 기둥이었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번역을 맡아 준 레이첼리 시인/번역가(영문명 Rachel S. Rhee), 윤선주 시인/번역가(영문명 Irene Yoon)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책이 이루어 질 수 없었으

며 두 분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은 한국문학 사상 처음이 아닌가 한다. 「해외문학」지의 조운호 시인은 오래 전부터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꿈꾸어 오셨고, 그 가장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계문인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해외문학」 제16호에 미국과 세계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동시에 미주 한인시인들의 작품을 세계 문학지에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 오셨다. 2011년 7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소재한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그 첫 행사, “한미문학교류 기념축제”를 가졌으며 이어서 앤솔리지 기획에 들어갔다.

2013년 11월, 책이 출판되자 미국과 세계 시인들이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 여러 시문학 단체들이 다투어 「해외문학」과의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신청해 왔다. 현재 「해외문학」은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영국, 인도, 루마니아, 그리고 시칠리아 등 세계 여덟 문학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그들의 웹사이트에도 「해외문학」이 그들 단체의 파트너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외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그들의 출판물과 문학지에 발표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그들의 작품도 「해외문학」지에 발표하려고 한다.

앤솔리지에 소개된 시인들의 기쁨과 만족감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미 “다음 호에 작품을 발표하고 싶다”며 원고를 보내온 시인들도 다수이다. 이 얼마나 다행하고 통쾌한 성과인가? 우리 문학 사상 이렇게 많은 세계 시인들의 호응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받아 본 적이 있었던가? 이번 「해외문학」 제 19호에 세계 여러 파트너십 단체들을 소개하며, 그 회원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해외문학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2014년 4월 12일(토) 뉴욕시 맨해튼 다운타운에 위치한 “Poets House”(시인의 집)에서 이 책의 출판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스사의 스탠리 발칸 대표가 주최한 이 행사는 12시(정오)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열린 마라톤 행사로서 100명 이상의 시인, 문인, 번역가, 예술가, 문학애호가들이 참석하여 작품을 앤솔리지에 수록된 많은 시인들과 번

역가들이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낭송을 했으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행사는 특히 작고시인 고원 시인과 조지훈 시인의 추모 행사도 겸했는데 조지훈 시인의 장남, 조광렬 씨(건축가/수필가)가 참석하여 아버지의 뜻을 기림으로써 이 자리를 더욱 빛냈다. 그 밖에 박보명 시인, 김송순 시인, 광상희 시인, 레이첼 리(시인/번역가) 씨, 박병국 번역가, 조정하 시인과 부군, 이희만 시인,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아 준 배소현 화가의 부모, 그 밖에 뉴욕 지역의 여러 한인 동포들이 참석했다. 미국과 세계 문인으로는 Laura Boss, Maria Mazziotti Gillan, Peter Thabit Jones, Charles Fishman, Bill Wolak, Sultan Cato, Hassanal Abdulah, Christine Bird, Maria Burnett, Christine Doll 등 시인, 문필가, 출판가들이 참석했다.

최근 해외문학과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사 공동으로 출판된 조윤호 시인님의 한영 이중 언어 시집 “The Love of Apple Tree”(사과 나무의 사랑)의 시를 낭독했다. Carolyn Mary Kleefeld 시인의 한영 시집 “영혼의 씨앗”도 소개되었다.

이 행사를 마친 후에는 조윤호 회장님 주최로 참석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사날 압둘라 인도계 미국시인은 “인도의 벵갈에서 「한미 현대시」를 교재로 하여 시문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일본계 미국 시인 나오시 코리야마 씨도 「한미 현대시」를 교재로 하여 일본 동경대학에서 시문학 특강을 가졌으며, 일본의 「시와 사상」지와 「Coal Sack Magazine」 No.78 (석탄 푸대 제 7 8 호) 등 두 문예지에도 서평과 소개 칼럼을 발표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조윤호 시인이 말했다.

어쨌든 뉴욕 맨해튼 소재 “시인의 집”에서 열린 이번 「한미 현대시」(Bridging the Waters=물 위에 다리 놓기)의 출판 기념회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큰 획을 그은 뜻 깊은 날의 행사였다.

—2014년 5월 31일

## 초대석

International poets invited seats

American Poets

Bengali Poets

Canadian Poets

Israeli Poets

Italian Poets

Romanian Poets

Sicilian Poets

Welsh Poets

## ▣ 제 1부 AMERICAN POETS

### 미국시인들 소개

####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Cross-Cultural Communications**는 1971에 Long Island University의 Brooklyn Center에서 27개 국어와 문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시인이며 편집자인 Stanley H. Barkan과 그의 예술가 부인 Bebe가 창립하여 곧 작은 출판사가 설립되었다. 과거 45년 동안 CCC는 소규모이나 독립적인 출판사로서, 번역문학에 있어 가장 고급의 세계문학을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소통이 장벽을 허무는 가장 큰 도구로 믿은 Barkan 부부는 그 동안 40개국의 50개 이상 언어를 통해 세계의 출판사와 저자들과 함께 일해 왔고, 앞으로도 전 세계대륙에서 그가 일으킨 파문은 계속될 것이다.

창립 이후, CCC는 Allen Ginsberg, Pablo Neruda, Isaac Asimov, Louis Simpson, Rainer Maria Rilke의 시집을 포함하여 400권 이상의 시집을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능 있는 무명 시인을 발굴하여 그들의 소중한 작품을 첫 출간하는 전율과 기쁨을 주어왔다. 여러 해 동안 Stanley H. Barkan과 CCC는 전 세계에서 수십 번의 주요 문학 세미나를 열었는데, the International Literary Arts Festival은 1990년부터 10년간 뉴욕소재 UN의 Dag Hammarskjöld 강당에서 열렸다. CCC가 이룬 업적은 무수하여 말로 나열할 수가 없는데 Barkan과 CCC가 이룬 가장 큰 보상은 세계의 작가, 독자, 문학애호가들에게 시의 세계를 더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만든 것이다.

CCC와 한국과의 인연은 1971년에 시작되어 창간호인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에는 고은씨의 시가 실렸다. 그리고 CCC는 그의 시집 *The Turn of Zero*를 1971에 출간(2004년에 재인쇄)했고, 그와 공동

작업으로 *Cross-Cultural Review #4: South Korean Poets of Resistance* (1980)와 *Voices in Diversity: Poets from Postwar Korea*(2001)를 발간하였다.

2005년 이후 CCC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아래 여러 한국 작품을 이중 언어로 발간해오고 있다:

〈돈황의 사랑〉 윤후명 저, 김경년과 Steffen F. Richards 공동 번역(2005). 〈슬픔도 힘이 된다〉 양귀자 중단편집, 류영주 번역(2005) 〈조선 가사문학선〉 이성일 번역(2009). 〈빌라도의 예수〉 정찬 저, 공유정 역(2011)

2011년에 Stanley H. Barkan과 《해외문학》 발행인 조운호는 함께 Korean-American 시인들을 조명하여, 문학잡지인 *Paterson Literary Review*, *Lips*, *The Seventh Quarry*, *Shabdaguchha* 등에 한국 작품이 이중 언어로 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Korean-American 시인들이 폭 넓은 독자를 갖게 되었다. 2013년에는 한-영 시선집 *Bridging the Waters* (한미 현대시)가 CCC와 KEL(해외문학)에 의해 발간되었다. 조운호 시인의 *The Love of an Apple Tree* (2014)를 서두로 CCC는 《해외문학》과 협업으로 한영 이중언어 시집을 계속 발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락처 :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39 Wynsum Avenue, Merrick, NY 11566-4725/ USA. (516) 868-5635. cccpoetry@aol.com.

## WASF FOR THE LOVED ONE

Maria Bennett

your eyes like half-full wells  
without them i cannot see my body

your mouth a compass  
without which i cannot navigate this delirium

your arms fir branches  
bearing me aloft  
without them i would be  
so close to the ground

your legs open harbors  
weighting my balance  
without them i could not circle you  
in this dance  
of endless  
remembering

From *Because You Lo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1)



**Maria Bennett** has published a translation of the works of the Italian poet Annelisa Addolorato entitled *My Voice Seeks You: The Selected Poetry of Annelisa Addolorato*.

**머리아 베넬** : *My Voice Seeks You: The Selected Poetry of Annelisa Addolorato*라는 이태리 시인의 작품을 번역 출간함.



# 연가

머리아 베넷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당신 눈은 물 고인 우물  
그들 없인 내 몸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당신 입은 나침반  
그것 없인 이 광란의 세상 향해할 수 없어요

당신 팔은 나뭇가지  
나를 높이 들어주어  
그들 없인 밑바닥을  
헤멜 수밖에 없고요

당신 다리는 열린 항구  
내 몸 균형을 잡아주어  
그들 없인  
이 끝없는 추억 속에서  
당신 주위를  
멤들 수 없을 거예요

<Because You Lo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1)>에 수록된 시

## DINNER IN DAEGU

Joan Digby

They were all children in America,  
studying English, taking degrees,  
looking for the knife edge of advantage  
that would slice their futures open.

Now they are forty-something,  
parents graying at the edges,  
gathered around a laden table  
to tell stories of how life has been,  
passing the side dishes  
sharp and sour, dropping hints  
of tragedies endured beyond translation.

We share our meal in the Korean way  
propped up on cushions at a low table,  
picking delicately around pungent food  
that barely masks the raw.



**Joan Digby** is a professor of English and director of the Poetry Center at Long Island University. For many years, she fostered an exchange program with Keimyung University in Daegu, Korea.

**조운 디비** : 그녀는 Long Island University의 시문학부의 학장, 영어 교수. 여러 해 동안 대구의 계명대학교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 중.

## 대구에서의 식사

조운 덕비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미래를 보장받을  
빈틈없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학위를 받으며  
그들은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

이제는 40대 중년  
머리가 희어가는 학부모들  
저마다의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  
음식 그득한 회식 모임에 둘러앉았다.  
맵거나 신 반찬을  
돌리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과거지사들을 흘리며.

낮은 밥상 앞 방석 위에 앉아  
인생의 쓰라림을 약간이나마 감싸주는  
토속 음식을 조심스레 젓가락질하며  
우리는 함께 한식을 먹었다.

## MY FRIENDS

Kristine Doll

My friends are poets.  
Breathing duende into souls,  
setting lives on fire.  
They stay up long past bed-time  
translating the wondrous.

Do they never sleep?  
I hear them chiseling words,  
smell them in my sheets,  
taste them in meals of dark birds.  
And when they leave—  
such silence.

From *Imagine & Poesia*, 2013



**Kristine Doll's** poetry and translations have been published internationally. "My Friends" was nominated for a Pushcart Prize in Poetry.

**크리스틴 달** : 시집과 번역본이 국제적으로 출간된 바 있음. 시 "My Friends"가 연간지 Pushcart Prize의 시부문에서 선정되었음.

## 내 친구들

크리스틴 달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내 친구들은 시인들.  
영혼 속으로 요정을 불어넣고  
인생에 열정을 지핀다.  
놀라운 경이를 번역하느라  
늦게까지 자지도 않는다.

그들은 결코 잠들지 않는 건가.  
그들이 언어를 끌질하는 게 들리고  
내 침대 요에선 그들 냄새가 나고  
새 요리 속에선 친구들 맛이 난다.  
그리고 그들 떠나면—  
거대한 침묵 흐른다.

<Imagine & Poesia, 2013>에 수록된 시

## EDITORIAL OBSESSION

Phyllis Gershator

I can't sleep  
I'm not my usual self  
Is this what they mean  
by identity crisis  
becoming the other?  
lack of boundaries?

Kept awake by the poem  
you haven't written  
I'm rewriting it  
and sharing your experience  
experience I haven't had

I'm penetrating your deepest allusions  
revisiting your passions  
understanding the surreal connections  
you've already forgotten

Soon I'll rewrite  
everything you've written  
I'll take all the credit  
I won't sleep with you either  
I'll take the whole bed



**Phillis Gershator's** poetry has appeared in numerous anthologies and journ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her poetry and her award winning books for young people, visit [www.phillisgershator.com](http://www.phillisgershator.com)

**필리스 거셔토** : 그녀의 시가 여러개의 시선집과 잡지에 게재됨.  
[www.phillisgershator.com](http://www.phillisgershator.com)에서 그녀의 시와 수상 작품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편집자의 변

필리스 거셔토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잠들 수 없는 나  
평상시의 내가 아닌 나  
이게 흔히 부르는  
정체감 위기라는 건가  
경계를 잃고  
주변인이 된다는 건가.

당신이 잘 못 쓴  
시 때문에 잠 못 들고  
난 다시 쓰고 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내가 겪지 못한 경험을.

당신의 열정을 재연해 보고  
당신이 까맣게 잊어버린  
초현실적 연계를 찾아보면서  
당신의 감춰진 시상을 탐사하고 있다.



곧 나는 써 내리라  
당신이 이미 써 본 것을  
내가 모든 찬사를 받게 될 것이며  
다시는 당신과 함께 자지도 않겠고  
혼자서 침대 전체를 차지하리라

# TIME

Bernard Mann

Time.

Time passing.

Time's passed.

Not much time left now.

Time to go.

A few last words, though.

Still looking for the mockingbird  
that left her nest, her perch, her true home,  
as comfortable and worn-in to her  
as yours is to you,  
in the tree next the yaupons next  
the bigtooth maples  
next the pebbled bouldered earth  
out front my house, last year after years  
and years of fluted marbled tumbling song.  
Left, without a goodbye. Or forwarding address.

If, when, the mockingbird returns  
or some young replacement checks in, give him  
or her, or them, my regards. And let it be known  
I might be back to listen for those songs again.



**Bernard Mann's** poetry is published in *New Millennium Writings* and *Cyclamens & Swords*. His fiction includes *Sea Change* and nonfiction, *Rivers in the City*, on waterfronts in Europe and U.S.

**버나드 맨** : 그의 시작품이 *New Millennium Writings*와 *Cyclamens & Swords*에 실림. fiction으로 *Sea Change* 가 있고, non-fiction으로

*Rivers in the City* 가 있다.

# 시간

버나드 맨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시간.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흘렀다.  
남은 시간은 그저 조금.  
이젠 갈 시간.

그래도 몇 마디 못 다한 말.  
내 집 앞의 조약돌 둥근 돌로 뒤덮인 땅 옆의  
단풍나무 옆에 서있는  
감탕나무 옆에 있는 나무속의 등우리.  
당신의 집이 당신에게 그러하듯  
그녀에게도 말할 수 없이 아늑했던  
그 등지 그 집을,  
여러 해 동안 풀쫂 같고 마블 같은  
요동치는 노래를 부른 후 작년에 떠나 간,  
그 흉내지빠귀를 아직도 찾고 있다.  
안녕이란 말도 없이 그녀는 갔지. 주소도 없이.

만약, 그 흥내지빠귀 돌아오면  
더 어린 새라도 돌아오면, 그에게  
그녀에게 그들에게 내 안부 전해주소.  
그들 노래 듣기 위해 나 다시 오겠노라 전해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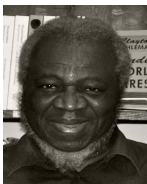
# NOAH

Ifeanyi A. Menkiti

Noah had a big nose and because Noah had a big nose  
all the animals first refused  
to go into the Ark with him  
lest he crowd them out with his very big nose.

But the reason Noah had a big nose was because he was  
too poor to have his nose trimmed;  
Noah lived with the nose that God gave him. Because of this,  
the animals  
took great pity on him;  
that was why they decided  
to join him in the Ark.

From *Before a Common Soil* (Ilora Press, 2007)



**Ifeanyi A. Menkiti**, born in Nigeria, teaches Philosophy at Wellesley College and is the present owner of the Grolier Poetry Book Shop. He has published four books of poetry

**이피아니 멘키티** : 나이지리아 출생. Wellesley College에서 철학을 가르침. Grolier Poetry Book Shop을 운영 중. 4권의 시집을 발간함.

## 노아

이피아니 A. 멘키티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노아는 코가  
컸네  
노아의 코가  
커서  
모든 짐승들이 처음엔 노아를 따라  
방주에 들어가기 거절했네.  
그의 코가 너무 커서 방주가 답답할까봐.

그러나 노아의 코가 컸던  
이유는 돈이 없어 코를  
낮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코 그대로  
살았네. 그 때문에 짐승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네.  
그래서 짐승들은 그를 따라 방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네.

<Before a Common Soil (Ilora Press,2007)>에서 발췌

## MY ROSES IN NOVEMBER

Yvette Neisser Moreno

Nothing daunts them. Not cold or storms,  
not the curled leaves catching on thorns.

Even now, when I think they've gone,  
a new bud peeks out of the rain

and then it opens, it opens—  
their fragrance spills into winter.



**Yvette Neisser Moreno** is an award-winning poet and director of the DC–Area Literary Translators Network. She has translated from Spanish several books by Latin American poets.

**이벳 내셔 모레노** : 유명 시문학상 수상 시인. the DC–Area Literary Translators Network의 디렉터. Latin American 시인들에 의해 스페인어로 쓰여진 여러 책을 번역함.



## 11월의 장미

이벳 내씨 모레노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무서울 건 아무 것도 없다. 추위도 비바람도 아니며  
가을 잎사귀가 가시에 걸려 찢기는 것도 아니다.

꽃이 다 졌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새싹은 빗속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그들 향기, 겨울 속으로 쏟아져 나온다.

## WHAT'S THE HURRY?

Steffen F. Richards

It is five-thirty,  
and still dark out.  
A sparrow, or  
some such creature,  
is singing his heart out  
in the firm belief,  
it is so obvious,  
that to get the sun  
to come up,  
it must be coaxed.

But why so desperate?  
I seek the warmth  
of my blankets again,  
not desperate at all.  
And, please, could you  
hold the racket?



**Steffen F. Richards**, Native, S. F. Bay Area; high school, Sedona, AZ; US Navy (Hawaii); UC Berkeley, BA in History, Oriental Languages (Jap.), PhD drop-out, MA. House-painter, paper-hanger thereafter.

**스테인 리처드** : 샌프란시스코 출신. 애리조나의 Sedona 고교 졸업, 하와이에서 해군 복무, UC Berkeley에서 역사학과 일본어 전공, 박사학위 과정 중퇴, 페인트 기술자, 도배장이.

## 왜 서두르는가

스테픈 F. 리처드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지금은 다섯 시 반  
아직 밝은 어둡다.  
참새 한 마리,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이  
목청껏 울고 있다.  
해를 뜨게 하기 위해선  
해를 설득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내가 보기에든 확실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왜 저리 사생결단인가.  
나는 따뜻한 잠자리 속으로  
다시 파고든다.  
간절할 이유가 결코 없다.  
그러니 제발 좀 그 법석을  
멈추어 주지 않겠니?

## THE FOUNDING

Rebecca Seiferle

The only ghost I've ever seen  
was that of a baby black bear, waiting

for me one night in the kitchen in Salmon, Idaho,  
a small green tornado caught in the corner by the stove,

full of pale yellow lights like the tiny polished stones  
that flash in the bed of the coldest mountain streams.

All winter, we lived in that rented house, while the landlord,  
in the garage, practiced his butcher's art, skinning, gutting, disassembling

whatever the local hunters brought him—and I'd seen the cub  
hanging outside my window. Flayed of its rich black skin,

reduced to the scaffold of its bones, its overlay of red muscle and white fat,  
without claws or snout, pud or tail of bear, it hung in the glare

of the porch light like a human child. So when I went roaming  
the silenced house so late at night and was met by that wild presence,

I spoke to it until it sighed and vanished into the peeling wall,  
and left me, the only child still there, snared in the net of the world.

From *Bitters* (Copper Canyon Press, 2001)



**Rebecca Seiferle** was named Tucson Poet Laureate in 2012. Her fourth poetry collection, *Wild Tongue* (Copper Canyon Press, 2007), won the 2008 Grub Street National Poetry Prize.

**레베카 세이펠** : 2012년에 Tucson Poet Laureate 계관시인에 지명 됨. 네 번째 시집인 *Wild Tongue* (Copper Canyon Press, 2007)이 2008 Grub Street National Poetry Prize 상을 받음.

## 기아 飢餓

레베카 세이펠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내가 본 유일한 귀신은,  
아이다호 주 새몬시 어느 집 부엌에서 날 기다리고 있던,

검은 아기곰 귀신이었다. 그는 스토브 옆 구석에 갇혀,  
추운 겨울 산 속 시내 바닥에서 반짝이는 조약돌처럼

연노랑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작고 푸른 토네이도 같았다.

차고에서 살던 주인이, 그 지역 사냥꾼들이 가져온  
노획물을, 껍질 벗기고 내장 빼고  
해부하는 동안,

겨우내 우리는 그 임대주택에서 살았고, 그리고 내 창문 밖에는  
새끼 곰이 매달려 있었다. 두꺼운 검은 껍질은 벗겨졌고,

몸은 뼈와 붉은 근육과 흰 지방으로 분해되고,  
발톱, 주둥이, 앞발, 꼬리, 다 잘려나간 채,  
어린 아이처럼

그는 포치 등 아래 걸려있었다.  
밤늦게 고요한 집 밖을  
배회하다 그 존재와 마주치면,

그가 한숨 쉰 후 칠 벗겨진 벽 속으로 사라져, 세상의

땃에 걸려 혼자이던 나를 떠날 때까지,  
그와 얘기하곤 했다.

<*Bitters* (Copper Canyon Press, 2001)>에 수록된 시

## THIS POEM

Dan Shapiro

This poem will not protect you  
or fill a room with laughing children,  
won't build you a torso and limbs  
to cradle you through the night.  
This poem won't make oleanders bloom,  
sprinkle the air with jasmine perfume,  
won't spell out a name on the wind  
brown as skin tipped with gossamer wings.  
But a finger tracing these words  
might reveal you were here,  
what your eyes saw, the music you played  
(jolly ballads, serenades, a flight of strings),  
what you sketched into fourteen lines,  
the grit and odor of your days.



Daniel Shapiro's poems and translations have appeared in *American Poetry Review*, *BOMB*, *Confrontation*, and *Mandorla*. His latest publication is *Child with a Swan's Wings* (2013).

댄 샤피로 : 시와 번역이 *American Poetry Review*, *BOMB*, *Confrontation*, *Mandorla* 등 시전문지에 수록됨. 그의 최근 작품은 *Child with a Swan's Wings* (2013)임.



## 이 시는

덴 샤피로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이 시는 당신을 보호 못할 거요,  
웃는 애들로 집을 채우지도 못하고,  
밤새 그대를 재워줄  
따뜻한 품도 제공 못할 거요.

이 시는 올리언더를 꽃 피우지 못할 거고,  
공중에 재스민 향기를 흩뿌리지도 못하며,  
얇은 사 날개 붙은 피부 같은 갈색 바람 위에  
어느 이름도 쓰지 못할 거요.

그래도 손가락으로 이 시어들을 따라 쓰는 건  
당신이 여기 존재했음을,  
당신이 보았던 것을, 연주했던 것을,  
(명량한 발라드, 세레나데, 현의 비상(flight)),  
이 14줄에 묘사했던 것을,  
당신 인생 자체를 보여줄 것이요.

## PASSING THROUGH

Preety Sengupta

Suddenly Harlem is startled.  
The rays of the setting sun  
have smeared it ripe orange.  
The broken glass is revived,  
briefly—some hidden memory  
of once-upon-a-time colours.  
The holes in the walls are  
like darkened caves—  
at the end, light awaits  
fading,  
but fundamental.  
The dusty blue and the murky brown  
are transformed momentarily.  
The associations are accidental,  
and real—  
but nobody's fault.

The way home ward is long. And laborious.  
The train keeps moving away.  
Soon it will be night.  
Soon shadows will  
scare.



**Preeti Sengupta**, born in India, has been living in New York City. She is a poet, essayist, and a short story writer, who writes in English as well as in Gujarati. She has published 40 books.

**프리티 센굽타** : 인디아 출생. 현재 뉴욕시 거주. 영어 및 Gujarati어로 집필하는 시인, 수필가, 단편 소설가. 그녀는 40권의 책을 출간했음.

# 기차가 지나가는 길

프리티 센굽타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할렘이 갑자기 놀란다.  
넘어가는 햇살에  
할렘은 오렌지색으로 뒤덮인다.  
깨진 유리병이 잠시 소생한 듯—  
한 때의 색깔을  
되찾는다.  
벽에 난 구멍들은  
깜깜한 동굴 같다—  
구멍 끝에는 빛이 기다린다  
바래어 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빛.  
푸르스름하거나 뿌연 고동의 색깔이  
즉시로 바뀐다.  
연상(associations)은 우연적이나  
실재적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다. 그리고 고되다.  
기차는 계속 달린다.  
곧 밤이 올 것이다.  
곧 그림자가 사람들을  
무섭게 할 것이다.

## BLUE BOTTLE

*for Dad*

J R Turek

Sun yellow lilies cut  
from my front yard garden  
three blooms burst  
from a single stem  
placed in a blue bottle  
on the windowsill  
of your hospital room.  
You watch the third flower  
the runt, you call it  
as it unfurls to flaunt  
pollen-laden orange stamen.  
You call to tell me that sunrise  
your last, though blessedly  
none of us knew that then,  
was the most incredible

you'd ever seen and by the way  
the lilies are in full bloom  
in the cobalt bottle—  
the one that sits empty  
in my windowsill.



**J R (Judy) Turek** is an editor, poet, and workshop leader. She lives on Long Island, NY, with her husband, her dogs, and her extraordinarily extensive shoe collection. [msjevus@optonline.net](mailto:msjevus@optonline.net)

**J R (Judy) 투렉** : 편집자, 시인, 학술 집회 사회자. 뉴욕 Long Island 에서 남편과, 애완견과, 방대한 신발 수집물과 함께 살고 있음.

## 파란 병

나의 아버지께

J. R. 투렉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나의 집 앞마당에서 꺾어온  
노란색 태양빛 백합  
아버님 병실  
창가의  
파란 병에 꽂았더니  
꽃대에서  
세 송이가 피었습니다.  
셋째 꽃을 보시다가  
꽃가루 머금은 오렌지 수술 자랑하기 위해  
꽃이 자태를 펼칠 때  
꼬마구나,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그 때는 다행으로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전화 속에서,  
일출이란 게 여태 본 것 중  
가장 멋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백합이 코발트 병 속에서  
활짝 피었다고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 창가에서 텅 비어 있는  
그 병 속에서.



## THE LOVER'S BODY

Bill Wolak

May your hands  
reach beyond dreams  
where moonlight  
awakens as flesh.

May your kisses  
seep deeper than rain  
into the body's  
pink crossroads.

May your fingers  
touch the unexpected  
always with the thrill  
of loving.

From *The Lover's Body*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4)



**Bill Wolak** has just published his tenth book of poetry entitled *The Lover's Body* with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Recently, he was a featured poet at The Hyderabad Literary Festival.

**빌 월랙** : 그의 열 번째 시집인 *The Lover's Body*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간)가 출간됨. 최근에 The Hyderabad Literary Festival에서 그의 작품을 발표함.

## 연인의 육체

빌 월랙

번역: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달빛이 육신으로 깨어나는  
꿈 그 너머를  
당신의 손이  
뻗게 하라.

당신의 키스가  
비보다 더 깊이  
육신의 분홍 교차로 속으로  
침투케 하라.

기다리지 않는 육신을  
당신의 손가락이  
항상 사랑의 진율로  
애무케 하라.

< *The Lover's Body*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4)에 수록된 시 >

## ▣ 제 2부 BENGALI POETS

### 인도 벵갈 시인들 소개

*Shabdaguchha*는 1998년에 창간된 이래 벵갈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발간되는데 Hassanal Abdullah가 편집장으로 있다.

그동안 세계 30여 개국의 동과 서의 시인들의 시를 게재해 왔다. 그리고 2001년에는 biannual *Shabdaguchha* 시문학상을 설립했고, 2013년에는 뉴욕에서 3일간 창간 15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열었다.

\* 연락처 : Hassanaal Abdullah, Editor-in-Chief,

646-309-9337, habdu056@aol.com, www.shabdaguchha.com.

## LETTERS FROM AMERICA

Jyotirmoy Datta

I have been intrigued by much  
That I came across in this bewildering land  
But by none more than the winged corkscrew  
Bottle openers I bought at our neighborhood store.

The object looks like the skeleton  
Of a man without legs  
Whose spinal column  
At turns of its hollow skull  
Becomes its penis, which penetrates the cork.

Punctured, with loss of a little wine,  
The cork is evicted from the bottle  
Following a manly pumping of the outstretched  
Metal arms  
Which is why in the local tongue  
Making love is called "screwing."  
But it's a love even more heartless  
Than that of the caliph in the *Arabian Nights*.

I think of all the empty spaces in the world:  
The slits of my shirtsleeve buttonholes,  
The hollows in the breasts of shoes  
Waiting in cardboxes in the stores.

But in all the earth there is nothing emptier  
Than the hole in the punctured virgin cork  
Pierced by a ravisher who was cold as steel.

*Translated from the Bengali by the poet*



**Jyotirmoy Datta**, a poet, essayist, and translator, worked for *The Statesman*, Calcutta's oldest English-language daily. He lectured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a resident at the University of Iowa.

**조티모이 대타** : 시인이며 수필가, 그리고 번역가. 캘커타의 가장 오래된 영어 일간지인 *The Statesman*을 위해 일했음.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강의했으며 the University of Iowa에서 수학함.

## 미국 편지

쥘레모이 대타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이 혼란스런 신세계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과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건 동네 가게에서 산  
날개 달린 코르크 병마개 따개.

그 물건은 다리 없는 남자의  
몸통 해골 같은데  
뺨 뚫린 두개골을 돌리면  
나사 모양 등뼈가 남성 성기가 되어  
코르크를 뚫는다.

넓게 벌린 쇠붙이 팔의 남성적인 펌프질 후  
코르크는 병에서 튀어나오고  
와인이 조금 쏟기면서 병은 뚫리는데  
그건 속어로  
“연애는 나사질이다”라고 불려지는 이유이다.  
아라비아안 나이트 속 칼리프\*의 사랑 연애보다도  
그러나 더 차가운 사랑이다.

지구상의 빈 공간들을 생각해본다.  
내 셔츠 소매의 단추 구멍,  
가게의 박스 속에 기다리고 있는  
신발 앞 축의 젓가슴 모양 빈 공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뚫려있는 코르크의 처녀다운 구멍보다

더 텅 빈 건 없다

쇠처럼 무정한 강간 자가 뚫은 그 구멍보다.

\*칼리프 : 이슬람 국가의 세속적 종교적 수장인 직함을 말함.

벵갈어 영어 번역 : 저자

## SO DOES THE BODY

Nirmalendu Goon

So, does the body hold the mind?  
Or is it the mind that peeks out of the body?  
Fifty-four summers have vanished and yet  
The quarrel goes on!!  
The war between mind and body  
Leaves Batsayon torn in blood and tears.

Rational mind rules, the mighty mind  
The body is thrown under feet  
Self-denial, the body loses the war  
Master of self denial, Batsayon!!

The truth, the truth comes  
Even though unrelenting days of hardship are over.  
He knew it is the body and the essence of manhood  
Not the mind, never the mind.  
Mind changes and takes the shape of the container  
Mind changes over time, from place to place



Mind acts to survive the times, but  
The body is still, ancient  
The drive of desire is the truth  
The truth that made Galileo unmovable.

*Translated from the Bengali by Kayes Ahmed*



**Nirmalendu Goon**, one of the most popular award-winning poets of Bangladesh, is the author of 45 poetry books and 25 prose works. His work has been translated into any languages.

**느말렌두 군** : 방글라데시의 가장 유명한 시인 중 일인. 45권의 시집과 25개의 운문작품의 저자임. 그의 작품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음.

## 과연 육신이 정신을

느말렌두 군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과연 육신이 정신을 안고 지배하는가  
아니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정신인가  
54번의 여름이 지났는데도  
논쟁은 아직도 계속 중!!  
정신과 육신 간의 싸움은  
뱃세운을 피눈물로 찢어놓는다.

정신이 지배하누나. 강인하고 합리적인 정신이.  
육신은 발밑으로 내던져져  
자신을 부정하다 싸움에서 진다  
자기 부정의 대가여, 뱃세운이여!!

진실, 진실이 다가온다  
가차 없는 고난의 날들은 이제 끝났다.  
정신이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육신이 정수(essence)임을 그는 알았다.  
마음은 변하며 용기(container)따라 바뀌며  
시간마다 변하며 장소마다 달라지며  
시대에 부합키 위해 아첨한다. 그러나

육신은 변함없이 고고하며  
육신의 욕구는 진실하다  
갈릴리오의 확고부동한 진실처럼.

벵갈어 영어 번역 : 케이예스 아미드

## A DREAM TO DESTROY

Naznin Seamon

Sometimes, I wish to break the world  
like a glass bottle. Sometimes,  
I even wish to smash it into a ball,  
like an old car in the junkyard.

A swarm of black flies has been  
eating up the upper-end of its penis,  
neutron bombs have been  
pushed deep into its vital vagina,  
yet, it does not shiver in pain,  
it does not slip away from the orbit.

I wish to finish it—the speechless,  
silent and submerged world,  
I wish to blow it up into the air.

*Translated from the Bengali by Hassanal Abdullah.*



**Naznin Seamon**, after completing her MA in English literature at Queens College, works as an ESL teacher at John Adams H.S. She has published three poetry books and a short story collection.

**내즈닌 시몬** : Queens College에서 영문학석사 학위 취득 후 John Adams 고교에서 이중언어 교사로 봉직함. 3권의 시집과 한 권의 단편소설집을 발간.

## 파괴하고 싶은 층동

내즈닌 시몬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때로, 유리병 깨듯  
세계를 깨고 싶다. 때로,  
폐차장의 고물차처럼 구겨  
공처럼 만들고 싶다.

검은 파리 떼가 지구의  
성기 끄트머리를 뜯어먹고 있고,  
중성자 폭탄은 지구의  
역동하는 질 내부로 강제 삽입 돼 왔으나,  
그러나, 지구는 아파 떨지 않고  
궤도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끝내버리고 싶다—말 없으며  
물밑에 잠긴 이 조용한 세상을,  
난 공중분해 해버리고 싶다.

벵갈어 영어번역 : 하사날 압둘라

## ☞ 제 3부 CANADIAN POETS

### 캐나다 시인들 소개

The World Poetry Café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송출되는 라디오 쇼이다.

비영리 단체인 the World Poetry([www.worldpoetry.ca](http://www.worldpoetry.ca))와 연계하여 The World Poetry Reading Series Society를 관할한다. World Poetry 산하 단체 활동을 보면 World Poetry Canada International, World Poetry Youth Team, World Poetry Monthly venues, The World poetry Peace Poetathon 등이 있다.

또 이번의 제 4회 World Poetry Canada International Peace Festival에서는 2014년 10월에 열릴 예정인 film festival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표어는 ‘약자들의 의사를 규합하자’라는 것이다.

\* 연락처 : Ariadne Sawyer, World Poetry President,  
604-526-4729, [ariadnes@uniserve.com](mailto:ariadnes@uniserve.com).

## PAPER BOAT

Bong Ja Ahn

Yesterday

I folded and unfolded

A white paper boat.

Who is the noble-born high up there

Passing through the perfumed April air.

Why the robins are busy singing at this early hour

And silvery sunrays ripple everywhere.

It's you

It's me

One followed by the other

Arrived on this side of mortal shore,

Where the yearnings flutter as high as they are deep,

Where Karma is yet to be unwound from tangled spool,

Where Breath of Life is like jade, precious and tearful.

Today again  
My white paper boat  
I fold, unfold, and fold again.

From *Poet and the Paper Boat* (2013)



**Bong Ja Ahn** is a literary columnist for Vancouver local Korean newspapers. A winner of the World Poetry Lifetime Achievement Award and Overseas Korean Literature Award. Author of seven books.

**안봉자**는 밴쿠버 일간 및 주간 한인신문에 고정 문예 칼럼을 지난 10여 년간 담당. World Poetry Reading Society 평생공로상과 제21회 해외한국문학상 등 다수 수상. 7권의 저서가 있음.



## 종이배

안 봉 자

어제는  
하얀 종이배  
접었다 폈다

꽃 사월 먼 하늘가  
어느 귀한 손님이 지나시기에  
개똥지빠귀 새들 아침부터 저리 부산스럽고  
햇살은 은빛 가득히 찰랑이는가

흐르는 너와  
흐르는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다른  
이승의 강가에서는

그리움 깊은 만큼 높이 나부끼고  
살뜰히 못다 푸는 얽힌 인연에  
목숨은 눈물겨운 비취빛인데

오늘도  
또 하얀 종이배  
접었다 폄다 또 접었다.

제2 영문시집 *Poet and the Paper Boat*/시인과 종이배' (2013)에 수록

# LAUGHING STAR

Huguette Bertrand

Please don't miss the star  
shining above  
like an eye watching us  
mourning for this  
and that  
while elsewhere  
someone is weaving  
mornings and laughs  
surrounding miseries  
spinning all around

Please stop mourning  
and watch the star above  
laughing all around!

*May 6, 2014*



**Huguette Bertrand** is a French-Canadian poet living in Quebec. She has been writing and publishing poetry for 30 years. Her poetry books are listed in *Canadiana*, available in digital edition.

**휴겔베르트란드:** Quebec에서 거주하는 French-Canadian 시인. 30년간 시를 쓰며 발표해 오고 있다. 그녀의 시집은 *Canadiana*에 등재되어 있으며 디지털판도 가능하다.

# 웃고 있는 별

휴렛 베어트란드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침을 짜 맞추며  
내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둘러싼 불행에도 웃을 동안  
이것 저것을  
슬퍼하며  
우리를 보고 있는 눈동자처럼  
그 위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별을 그리워 말라

부디 슬퍼하기를 멈추고  
내내 웃고 있는  
저 위의 저 별을 쳐다보라!

2014년 5월 6일

## BEST DAY

Bernice Lever

is coming home to yourself.  
It might begin with that poetic sunrise  
lifting high above dusty plains  
or not until a foggy dusk creeps  
around so others are blocked in  
their separate universes,  
letting you be vibrantly whole.

You resonate with being alive;  
you are sound and substance,  
a mingling of music  
as Northern Lights dance  
through your fingers and toes;  
your heart bubbles with song  
as you find no contradictions  
in the unity of being.

That awesome moment  
when all feels  
right in the universe  
and with yourself.



Bernice Lever, who has read her poems on five continents, awaits her 12th poetry book, *Red Letter Day* (Black Moss Press, 2014). She lives on Bowen Island, BC, Canada. [www.colourofwords.com](http://www.colourofwords.com)

**버니스 레버** : 5개 대륙에서 시 발표회를 가졌음. 12번 째 시집 *Red Letter Day* (Black Moss Press, 2014)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음. 캐나다의 Bowen Island, BC.에 거주함. [www.colourofwords.com](http://www.colourofwords.com)

## 생애 최고의 날

버니스 레버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최고의 날이 네게로 오고 있다.  
그건 평원 위 저 높이 떠오르는  
그 시적인 일출로 시작하리라  
아니면 몽롱한 황혼이 스며들어  
타인들 각자 분리된 세계에 빠지고  
너만이 온전히 혼자서 서게 되는  
그때에야 시작되리라.

살아있음을 너는 만끽한다,  
너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로  
북극 오로라가 춤출 때  
너는 소리요, 너는 온전한 실체  
너는 종합 음악.  
일체감 속에  
다른 모순이란 없으니  
네 심장은 노래로 팽창되누나.

만물은 우주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화평하며  
너도 더할 수 없이 자족스런  
그 놀라운 순간이여.



## ☒ 제 4부 ISRAELI POETS

### 이스라엘 시인들 소개

**Cyclamens and Swords Publishing**은 2008에 Johnmichael Simon 과 Helen Bar-Lev에 의해 창간되었음. 그들은 2007년에 Ibbetson Street Press에 의해 간행된 그들의 시집 첫머리에서 이 단체 이름을 인용해왔다.

\*연락처 : **Helen Bar-Lev**, P.O. Box 21, Metulla 10292 ISRAEL  
972 773535548 hbarlev@netvision.net.il

**Johnmichael Simon** j\_simon@netvision.net.il

\* \* \*

*Voices Israel*은 1971년 8월에 Leslie Summers, Reuben Rose, Moshe Ben-Zvi, Jacob Katwan 등 4명이 창립함. 그 후 이 단체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전 세계 회원 150명으로 성장함. 회원들은 Tel Aviv, Haifa, Jerusalem 및 타 도시에서 열리는 월례회에서 시낭송을 하며, 년 3회 개최되는 연구집회에 참석한다.

\*목표 : 이스라엘 내 작가들에게 배출구 제공, 신인 격려, 시를 통한 국제적 교우 관계 진작.

\*연락처: **Wendy Blumfield**, President *Voices Israel*, 19 Sderot Wingate  
Haifa 3353307 04 837 6820 wendyb@netvision.net.il

# DISINTEGRATION

Helen Bar-Lev

I pull the thread,  
come back I plead  
not you, youth,  
you're gone for good  
it's for my health I beg

Oh, do rewind  
that cord of time  
regenerate my bones,  
my heart, my tummy,  
my memory

But this old body  
pays no heed  
shows no mercy

At least  
there is poetry



**Helen Bar-Lev** is an artist and poet. She lives in Metulla, Israel, and is Assistant President of *Voices Israel* and Senior Editor of *Cyclamens and Swords*.

[www.helenbarlev.com](http://www.helenbarlev.com)

**헬렌 바-레브** : 예술가이며 시인. 이스라엘의 메툴라에 거주하고 있다. *Voices Israel*의 부회장. 문예지 *Cyclamens and Swords*의 편집 고문.  
[www.helenbarlev.com](http://www.helenbarlev.com)

## 세월

헬른 바-레브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실을 잡아당긴다  
돌아오라, 간청한다  
젊음아 널 말하는 게 아니야  
넌 영원히 가버렸지  
건강이여 돌아오라, 난 간청한다

오, 되감아 주렴  
저 세월의 줄을  
내 뼈를, 내 심장을, 내 배를,  
내 기억을,  
새로 만들어 주오

그러나 이 늙은 육신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비를 보여주지 않는다

적어도 내게는  
시가 남아 있다

## SHADOW

Johnmichael Simon

Is there someone you can bare your soul to  
someone you can trust  
with all the secrets you have stored for years  
hiding behind the cellar door  
listening outside yesterday's ears  
unanswered love letters that you wrote  
initials carved on trunks of trees?

Trust with jealousies and fits of spite  
the shame and guilt of trinkets shoplifted  
conversations overheard  
others' letters opened, read by candlelight

Is there someone, somewhere  
you can tell it all to, your heart, your tears  
your muddy boots and unwashed private fantasies  
forgotten things that saunter back to haunt you?

Is there someone anywhere who'll hold your hand  
who'll never judge or hurt you, understand perhaps

Answer me shadow, answer me!



**John Michael Simon** has published five books of poems and several collaborations with partner Helen Bar-Lev. He is chief editor of Cyclamens and Swords publishing.

[www.cyclamensandswords.com](http://www.cyclamensandswords.com)

**잔마이클사이먼:** 5권의 시집발간. 파트너인 Helen Bar-Lev와 여러권의 시집을 공동 발간함. Cyclamens and Swords publishing의 편집장임.

[www.cyclamensandswords.com](http://www.cyclamensandswords.com)

## 그림자

잔마이클 사이먼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지하실 문 뒤에 숨던 일  
너만이 듣게 된 타인의 비밀  
답장 받지 못한 너의 연애편지  
나무 몸통 위에 비밀리 이름 석 자 새긴 일  
오랫동안 감춰온 이 비밀들을  
너의 영혼 별거벗겨 안심하고 털어놓을  
그 누군가 네게 있는가.

질투와 적개심을  
좀도독질한 창피와 죄책감을  
남의 얘기 엿들은 일을  
딴사람의 편지 뜯어 촛불 밑에서 읽은 일을.

너의 속마음, 너의 눈물,  
진흙투성이 너 자신과 떨어지지 못한 은밀한 충동,  
널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잊고 싶은 과거,  
이 모두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 어디에 있는가.

네 손 잡아주어 비판 없이 수용하고  
이해해 줄 그런 사람, 어딘가에 있는가.

그림자여 대답하렴, 대답해다오!

## FOR MY FATHER

*“It is a tree of life for those who cling to it”  
– a Jewish prayer*

Dina Yehuda

You kept a picture of Yetta  
standing in a row of fifth-grade girls  
she is squinting in the sun,  
but you never spoke of Yetta  
or of Chaya and Sarah  
your sisters  
after the war.  
You found yourself alone in the garden  
a tree of knowledge  
mute, too laden  
How could you speak?  
You needed to cling to life.  
Speak to me now,  
You walked to your Chuppah alone,  
no father  
no mother



no little sisters to strew flowers.  
There is no one left to tell me.  
Speak to me.



**Dina Yehuda**, born in NYC to Holocaust survivors, she studied English Literature and Jewish Studies, for an MA at Columbia University, then moved to Israel, where she lives in Mizpe Netofa.

**디나 예후다** : 유대인 대량 학살 유족의 자녀로 뉴욕시에서 태어남. 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과정 영문학과 유대학을 전공, 그후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현재 Mizpe Netofa에서 거주하고 있다.

## 아버지께

“이것은 매달리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나무이다”

유태교 기도문

디나 예후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아버님 당신은  
5학년 줄에 서 있는  
고모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지요.  
눈이 부서 찢그리고 있는 예타 고모.  
그러나 당신은 종전 후 절대로  
어느 고모 얘기도 안 하셨지요  
예타, 채야, 새라, 어느 고모도.  
당신은 정원에 홀로 서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말없이, 혼자 세상 짐 지고.  
어떻게 무슨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삶에 붙어 있기도 힘드셨을 텐데.  
자 이제 제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예식장에 혼자 입장하셨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꽃 뿌리는 어린 여동생도 없이.  
제게 얘기 들려줄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들려주세요.

## ▣ 제 5부 ITALIAN POETS

### 이탈리아 시인들 소개

IMMAGINE & POESIA 국제 문학 운동으로 Dylan Thomas의 딸인 Aeronwy Tomas의 후원 아래 Italy의 Torino에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명예 위원으로 미국 시인 Lawrence Ferlinghetti와 예술가 Ugo Nespolo 등이 있다. 이 조직은 "CROSS FERTILIZATION"이란 순간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 시인, 작곡가들에게 열려 있다.

창립된 이래, IMMAGINE & POESIA는 계속 자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시인과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웹과 국제전시회를 통해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이 운동 조직은 고유한 강령과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를 통해 시가 어떻게 예술가들을 고무시키고, 이미지는 어떻게 시인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락처 : Lidia Chiarelli Actis, Corso Galileo Ferraris 75 10128 Torino, ITALY + 39 347 6992197 Lidia.actis@gmail.com

## THE BLIND MAN IN GÖREME

*(between chimneys of fairies)*

Anna Maria Bracale

He was blind, he was not dazzled  
by the light of magic rocks  
made iridescent by time  
his beard neglected for years  
his shape in rags  
propped up by a walking stick  
but he had his voice  
to tell the world  
the great misfortune  
of being blind in Göreme.

I reached him for a pitiful gesture  
my stare at his withered face  
carved by the wind.  
Suddenly I realized  
with a start, I had not my mouth  
I had not my voice  
to tell him a word.



**Anna Maria Bracale** has a degree in foreign languages and a music diploma. The organizer of multimedia performances, s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of poetry, stories, and fairy tales.

**애나 머리아 브라칼레** : 외국어와 음악학위가 있음. multimedia 공연기획자. 다수의 시집, 이야기 책 등의 저자임.

## 고레미\*시의 장님

(요정들의 굴뚝\* 사이에서)

애나 머리아 브라칼레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오랜 풍파로 찬란해진  
마법 돌의 광채에도  
눈이 부시지 않는, 그는 장님이었다.  
턱수염은 깎은 지 오래  
모습은 너털너털  
지팡이도 짚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고레미시에서 소경으로 사는  
엄청난 불우함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목소리가 있었다.

나는 그가 가여워 손을 내밀었다  
풍파에 시달린  
주름진 얼굴을 응시하는 나.  
별안간 깜짝 놀라며  
난 입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에게 말을 걸 목소리가  
내겐 없었다.

2014 \* 고레미 : 터키의 역사적 도시

\* 요정들의 굴뚝(chimneys of fairies) : 기묘한 돌무더기가 모여 있는 고레미 지역의 관광지

이태리어 영어 번역 : 저자

# TIMES SQUARE

Lidia Chiarelli

Switch on  
switch on once more  
lights at Times Square.

*Switch on for me  
in my last night in New York.*

The hot air in the streets is a gentle cloak  
that wraps me up.

Like windmills moving and moving  
don't stop your dance.

Let my eyes get lost  
again  
into your  
whirl  
so sweet  
so intoxicating.



Lidia Chiarelli (Torino, Italy). Artist and poet, co-founder, with Aeronwy Thomas, of the literary-art movement *Imagine & Poesia* (2007). Award-winning poet, multilingually translated.

리디아 치아렐리: 이태리의 토리노시 출신. 예술가이며 시인. 현대국제 문학-예술 움직임인 *Imagine & Poesia*를 2007년에 Aeronwy Thomas와 공동 창립함. 유명 시문학상 수상 시인. 그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됨.

## 타임즈 광장

리디아 치아렐리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켜 주오  
한 번 더 켜 주오  
타임즈 광장의 등불을.

뉴욕의 마지막 밤을 맞는  
날 위해 켜 주오.

거리의 따뜻한 바람은  
나를 감싸는 포근한 외투.

끝없이 돌고 도는 풍차처럼  
당신의 춤을 멈추지 마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뇌쇄적인  
당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 눈이 한 번 더  
길 잃게 해 주오.

2010년 7월 26일 뉴욕에서

*Imagine & Poesia*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3)에 수록된 시  
이태리어 영어 번역 : 저자



# I AM

Federica Galetto

I am like a stone under your tongue  
I am the bride's veil  
and the drop of salt into an ocean  
I am an empty jug and the lost water  
your arm and your wrist in a land of sounds  
I am the hole you have filled  
and the coat that you need  
marble  
wool  
gold and soul  
I am the descent you walk right through  
And the desert you'll obey  
I am everything  
And now I am gone  
(ghost in your mind)  
(I am)

*Translated by the author*



**Federica Galetto** was born in Turin, Italy, in 1964. She is a writer, poet, translator and collagist. The author of five books of poetry and a fiction e-book, she is featured in many anthologies.

**페드리카갈레토** : 1964년에 이탈리아의 Turin에서 출생. 작가이며 시인, 그리고 번역가. 콜라주미술가. 5권의 시집과 e-book 이야기책 1권을 출간. 여러 시선집에 작품이 발표됨.

# 나는

페드리카 갈레토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나는 당신 혀 아래 자갈  
나는 결혼 신부의 베일  
그리고 바다로 떨어지는 소금 한 줍입니다  
나는 빈 주전자, 엷질러진 물  
소리의 세상에서 당신의 팔, 당신의 손목입니다  
나는 당신이 채워준 구멍  
그리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외투이며  
대리석이며  
모직이고  
황금이며 영혼입니다  
나는 당신이 걸어서 관통하는 그 무엇  
그리고 당신이 복종할 사막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가고 없답니다  
(당신 마음속의 유령이지요)  
(나는)

2009

*Ode from a Nightingale* (Masque Publishing, Littlehampton, England 2011)에 수록된 시

이태리어 영어 번역 : 저자

## ▣ 제 6부 ROMANIAN POETS

### 루마니아 시인들 소개

루마니아 문학 단체들과의 연결은 올림피아 이야콥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콥 교수는 루마니아 작가 동맹의 회원으로, 현재 루마니아 아라드 소재, 바질리 골디스 웨스트대학의 현대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야콥 여류시인은 카시안 마리아 스피리돈, 가브리엘 스타네스큐, 게오리게 그리굴류, 페트르 코트 등 많은 루마니아 작가들의 작품을 영문으로 번역, 출간했다. 또한 영문학습 도서와 지침을 다수 출간하기도 했다.

최근 올림피아 이야콥 교수는 한국시인들의 작품을 루마니아어로 번역, 문학지 「Confesiuni」, 「CONVORBIRI LITERARE」 등에 소개하고 있다.

연락처: iacob.olimpia@yahoo.com

# A GHOST OF IVORY

to *Filomena*

Daniel Corbu

There is something of me which the grave diggers  
cannot bury.

There is something like scent that slips  
through their fingers.

There is something like a ghost of ivory  
like a line said in the morning  
by blackbirds or wagtails.

There is something of me which the grave diggers  
cannot bury.

*Translated into English by Olimpia Iacob & Joan Digby*



**Daniel Corbu** is a poet, writer, museographer, publisher, and editor-in-chief of *Feed Back*. Recipient of the Great Prize of Romanian Academy, he has published books of poetry and essays.

**대니얼 코르부** : 시인이며 작가. 박물관 전문가, 출판가, *Feed Back*의 편집장. Romanian Academy대상 수상자. 여러 권의 시집과 수필집 출간.

## 상아 유령

필로미나에게

대니얼 코르부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무덤 파는 사람도 묻을 수 없는 그 무엇  
내게 있네.

그들 손가락 새로 빠져나가는  
향기 같은 것 있네.

흑조나 할미새가  
아침에 지저귀는 노래 같은 것  
상아 유령 같은 것 그런 무엇이 있네.

무덤 파는 사람도 묻을 수 없는 그 무엇  
내게 있네.

루마니아어 영어번역 : 올림피아 아이어캡, 조운 덕비

## THE INNER EYE

Ioan Nistor

What will you do if your torch suddenly goes out  
as you run through a deep maze?

What will you do if you suddenly lose your eyesight  
as you pass through a crowded market?

What will you do if you are seized with a wave of sadness  
and your soul gives a start,  
and your eyes can read nothing around you  
and the eyes within you  
lack the guts to see farther?

*Translated into English by Olimpia Iacob & Joan Digby*



**Ioan Nistor** is poet, publicist, teacher of Romanian language and literature. An award-winning writer, he has published eleven books of poetry and four books of essays on Romanian literature.

**아이온 니스토** : 시인, 국제법 학자, 루마니아어 및 문학교사. 유명문학상 수상작가. 11권의 시집과 루마니아 문학에 관한 4권의 수필집을 출간.

## 내면의 시선

아이온 니스토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깊은 미로 속 달리는데

햇불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할래요

복잡한 시장 통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래요

슬픔이 갑자기 엄습하여

영혼이 깜짝 놀라

주위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당신 내면의 시선도

멀리 통찰할 용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루마니아어 영어 번역 : 올림피아 아이어캡, 조운 디비

# I AM TRYING TO UNRA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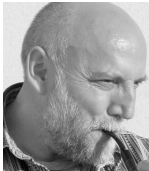
Cassian Maria Spiridon

I always arrive after the feast  
when everybody hurries to leave  
and by the door I meet those who draw the window shutters  
wondering if my name has been ever written  
on the guest list

(Does Penelope weave and untangle  
for me  
the cloth of waiting!)

I do my best to unravel  
to understand why I am the last newcomer  
and always first to leave

*Translated into English by Olimpia Iacob & Joan Digby*



**Cassian Maria Spiridon** is an award-winning poet and writer, director of *Editura Timpul*, president of Fundația Culturală Poezia, and editor-in-chief of *Convorbiri literare*.

**캐시언 머리아 스피리단** : 다수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며 작가.  
*Editura Timpul*의 감독, Fundația Culturală Poezia의 회장, *Convorbiri literare*의 편집장.



## 실타래 풀기

캐시언 머리아 스피리단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나는 늘 파티에 늦게 온다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려할 때에야 와서  
창문셔터 내리는 사람들을 문 옆에서 만난다  
내 이름이 초청 명단에 있었는지  
                    회의하며

(날 위해 페넬로피\*는 기다림의 천을  
짜다가 풀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늘 맨 나중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떠나는지  
그 실타래 풀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페넬로피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인. 남편을 기다리며 30년간 천을 짠다. 천을 완성하면 다른 남자가 구애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어서 다른 남자가 구애를 하지 못하게 막고 사랑을 지켰다.

루마니아어 영어번역 : 올림피아 아이아킵, 조운 덕비

## ☞ 제 7부 SICILIAN POETS

###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시인들 소개

Arba Sicula (Sicilian Dawn)은 시칠리아의 문화와 언어를 지원, 연구, 보호하기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국제적 비영리 기관이다.

세계적으로 2000 명의 회원이 있고, 해마다 160 쪽에 달하는 Arba Sicula 라는 잡지를 시칠리아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로 발간하는데, 시칠리아의 문학, 민속, 예술, 언어를 주로 다룬다.

또 Sicilia Parra (Sicily Speaks)라는 20 페이지의 신문도 년 2 회 발간하여 기관의 뉴스와 행사 및 Sicilian-Americans 의 관심 사항을 다룬다. Arba Sicula 는 시칠리아 문화를 홍보 진작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는데 그 멤버들이 발간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시칠리-영어 사전과 영어-시칠리 사전, 미국 학생들을 위한 시칠리아어 문법서, 시칠리아어 발음 안내서, 시칠리아어 배우기 대학 교재 등이 있다.

1987년 이후 St. John's University 의 원로 교수인 Gaetano Cipolla 가 Arba Sicula 의 회장 겸 편집자임. "Poets of Arba Sicula"를 13 이중 언어 판으로, "Sicilian Studies"를 28 권까지 각각 발간함. \*연락처 : Prof. Cipolla, PO Box 149, Mineola, NY 11501  
연락처: gcipolla@optonline.net

# BHARI

Louisa Calio

## **Traveling the desert's ponderous, pale-brown void**

dotted with camels, Bedouins  
dunes, dates and palms  
cypress trees and Nubian Pyramids,  
I am taken past the world of small, man-made laws  
into a Natural Order.

Cellular memories reawaken.

With each passing

undulation

I am reminded

that I too am  
a wave form.

## **Like an archeologist**

I've come to examine the shells of my origins:  
Pagan-Egyptian, Judeo-Christian-Coptic,  
Nubian, Sicilian, Maltese, Greek  
to better know all of my parts  
including those that remain hidden and dark  
veiled and repressed

in regions of the deeper psyche  
that long for illumination.

*A longer version of this poem won first prize in the City of Messina Poetry Competition, 2013.*



**Louisa Calio**, Director of the Poet's Piazza for Hofstra University's Italian Experience for 11 years, is an internationally published award-winning writer and photo artist.

**루이사 칼리오** : Hofstra University's의 이태리 문학 단체의 대표직을 11년째 역임. 국제 유명 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사진 예술가. 그녀의 저서는 국제적으로 출간됨.

## 브하리

루이사 캘리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 지루한 사막의 모래 빛 공허 속으로 여행을 한다

점점이 늘어선 건 낙타와 그 위의 베두인족  
모래 언덕 대추나무 야자나무  
싸이프러스 나무와 누비아피라미드.  
협소한 인위의 규칙을 벗어나  
자연 질서 속으로 나는 간다.

되살아나는 단세포적 기억.

지나는 곳마다

모래 물결

나도 그 파장의

일부인 것을

깨닫는다.

### 고고학자처럼 내 배경을 분석해 본다.

조명 받기를 갈구하는  
깊은 내면의 영역에서  
가려지고 억압 되어서  
어둠 속에 숨겨져 버린  
나 자신의 모든 면을  
더 잘 알기 위해.

난 이집트 이교도, 유대 천주콕트교,  
누비아인, 시칠리아인, 몰타인, 그리스인.

<BHARI>의 전문이 2013년에 Messina시의 시경연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함.

## WHEN IT RAINED RED AND ORANGE PETALS

Marisa Frasca

This is the last photograph of us in father's studio:  
Mother, Father, Aldo, me in angora sweater with Lurex thread.

Before the camera flashed I grabbed their hands,

hers close to my chest, his nearer my face. I would need that moment  
before New York City, when I longed to climb skyscrapers.

Part of me remained behind on that island of olives and plums running  
with him in *Ragusa* hills—when it rained red and orange poppy petals—

I caught them with my hands and my tongue—forever sit

on his apple green Vespa, hunched low below his knees, Mother behind  
him in a flowered dress, blue head scarf beating in the wind, and Aldo

hanging with the tail light headed for the beach *Scoglitti*.  
*Scoglitti*, where we were still one, and I belonged somewhere,

whole, familiar as our piece of Mediterranean.

*Translated from the Sicilian by the author*

First published in *Feile-Festa Literary Arts Journal*  
Spring issue 2007, edited by Frank Polizzi



**Marisa Frasca** is a poet and translator whose work has been widely published. She holds an MFA in poetry from Drew University and serves on the Board of ArbaSicula. Born in Italy, she now resides in New York.

**머리사 프라스카** : 시인이며 번역가. 다수의 작품집이 여러 곳에서 출판되었음. Drew University 대학원에서 시분야 학위 받음. 비영리 시실리문화단체인 Arba Sicula의 이사. 이태리 출신으로 현재 뉴욕에 거주.



## 울긋불긋한 꽃잎이 비처럼 내렸을 때

머리사 프라스카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이것은 아빠의 작업실에서 찍은 마지막 우리 사진이다:  
아빠, 엄마, 엘도, 그리고 양고라 울 스웨터 입은 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전 난 그들의 손을 잡는다

엄마 손은 내 가슴 위에, 아빠 손은 내 얼굴 옆에. 높은 빌딩에  
가보고 싶어 뉴욕에 가기 전에 난 그런 추억의 순간이 필요했다.

나의 일부는 아빠와 라구사니 언덕을 달렸던 그 올리브와 자두 섬에  
남아 있다—울긋불긋한 양귀비 꽃잎이 비처럼 내렸을 때—

난 손과 혀로 꽃잎을 맞았다—아빠 무릎 아래 구부린 채

난 그의 녹색 스쿠터에 언제까지나 올라앉았었고, 꽃무늬 드레스의  
엄마는 푸른 스카프를 바람에 날리며 아빠 뒤편에, 엘도는

꼬리 등에 매달려, 우린 스코글리티 해변으로 가곤 했었다.  
스코글리티, 우리 가족이 하나이던 곳, 내가 어딘가에 소속됐던 곳,

그건, 우리의 낮익은 지중해 풍경이었다.

*Feile-Festa Literary Arts Journal* 2007년 봄 판, (*Frank Polizzi* 편집)에 수록되었음.

시칠리어 영어번역 : 저자

## SCIENCE AND POETRY

Nino Provenzano

The Astronomer deploys the telescope  
to bring celestial bodies nearer,  
to better observe them.

The Scientist  
employs the microscope  
to magnify the substance and the matter  
that eludes the senses.

The Artist uses brush with paint, hammer and chisel.

The Poet,  
with his words,  
razor sharp,  
carves, cuts, peels,  
removes the hard rind. He shreds the curtain that masks the  
heavens to the naked pure truth and unshrouds  
bare humanity.

*Translated from the Sicilian by the author*



**Nino Provenzano** is the Vice-President of Arba Sicula. He has published two books poery, *Vinissi* and *The Return*, both translated by Prof. Gaetano Cipolla and Published by Legas.  
**니노 프로벤자노** : 비영리 시실리문화단체인 Arba Sicula의 부회장. 시집 *Vinissi* 와 *The Return*을 출판. (번역: Gaetano Cipolla 교수, 출판: Legas 출판사)

## 시와 과학

니노 프로벤자노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설치한다  
천체를 더 가까이 끌어오기 위해,  
더 잘 관찰하기 위해.

과학자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오감으로 못 느끼는  
물질과 물체를  
확대하기 위해.

예술가는  
물감과 붓,  
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시인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언어로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새기고, 자르고, 제거한다.  
그는 우주를 가리는 커튼을 분쇄하여  
꾸밈없는 진실과 벌거벗은 인간성을  
드러낸다.

시칠리아어 영어 번역 : 저자

## ▣ 제 8부 WELSH POETS

### 영국 웨일스시인들 소개

THE SEVENTH QUARRY는 Peter Thabit Jones가 설립, 운영하는 Swansea 지역의 시 잡지이다.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 게재를 추구한다.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라루스, 캐나다, 카탈로니아, 중국, 세공화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홀랜드, 인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시칠리,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등 여러 국가 시인들의 작품이 이미 수록된 바 있다.

이 잡지의 편집자인 뉴욕의 Vince Clemente는 미국 시인들의 꾸준한 발표를 확신하고 있다. 각 호마다 Poet Profile란에 그달의 시인을 소개하는데 영국시인과 비영국 시인을 교대로 소개한다. 또 서적과 잡지 코너를 두어 그 달의 특정 서적을 논평한다. 이 잡지는 현재 88페이지의 분량으로 1년 2회, 겨울/봄호와 여름/가을호가 간행된다. 웹페이지 주소는 [www.peterthabitjones.com](http://www.peterthabitjones.com)

## OBSERVING BEES

Paul Harris

The observer of bees  
watches,  
measures  
the grey shadow of  
yellow  
by  
black  
insects.

Fearing to be stung by depth,  
spitting out disturbed honey,  
he closes the book of observations  
in shadow-less days.



**Paul Harris**, from Swansea, Wales, is author of *Tongue In Cheek Tales*. He has contributed to *The Seventh Quarry* and to the Caca Milis Cabaret's *Red Lamp Black Piano*.

**폴 해리스**: 웨일스지역 스완시 출신. *Tongue In Cheek Tales*의 작가. 시전문지 *The Seventh Quarry*와 시선집 the Caca Milis Cabaret's *Red Lamp Black Piano*를 위해 헌신함.

## 벌 관찰

폴 해리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벌 관찰자  
들여다보고  
재본다,  
노랑고  
    검은  
        곤충의  
            재색 그림자를.

깊이 쏘일까 무서워  
건드린 꿀을 뱉어내며,  
그는 관찰의 책을 덮는다  
그들 없는 이 날에.

## LEAVING

Christopher Norris

It seems I never left you after all.

It felt like leaving—messages on screen  
(Incriminating ones), the late-night call  
With muffled talk, and then the final scene

(A desolating one). In any case

I left that evening two years back, and you  
Hung on a while, then sold the family place  
And now we meet from time to time like two

Speed-dating novices with a vague sense

We've met somewhere before. And yet, you know,  
That's how it often felt, so the past tense  
Doesn't quite fit and leaves me thinking: though

The calling distances have grown less small

It seems I never left you after all.



**Christopher Norris** is Professor of Philosophy at Cardiff University and author of many academic books. His first volume of poetry, *The Cardinal's Dog*, was published in 2013.

**크리스토퍼 노리스**: Cardiff University의 철학과 교수. 여러 전공 서적의 저자. 그의 첫시집 *The Cardinal's Dog*이 2013년에 출간됨



## 헤어짐

크리스토퍼 노리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당신과 헤어진 것 같지 않은 기분이다.

처음엔 헤어지는 것 같았다—스크린 위의 멧세지  
(날 비난하는 내용), 늦은 밤의 소리 죽인  
비밀스런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 장면

(황량했던 장면). 어쨌건

2년 전 그 날 저녁 나는 떠났다, 당신은  
좀 더 버틴 후, 집을 매각했고.  
전에 어디선가 만났었던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번개 데이트하는 초보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가끔씩 만난다. 그런데 당신이 알다시피  
그건 지금도 자주 느끼는 감정이고, 그래서 사실 과거 시제는  
적용이 안 되며 내게 생각의 여지를 준다. 비록

통화 간격은 더 멀어졌으나 당신과 결코  
헤어진 것 같지 않은 기분이다.

## COCKLE GATHERERS

Jean Salkild

Where the edge of the grey land fades  
into the greyness of the water,  
I watch the cockle gatherers

bound in woollen layers against  
the adhesive wind; they take the safe  
path through salt marsh and tidal creeks

animating the early morning  
horizon, breathing life into the  
struggling day; with rakes and riddles

at low tide they work the cockle  
colonies nurtured in the softened,  
wave-swept sand of the estuary.

Life is measured here by ebb ~ and ~  
flow ~ ebb ~ and ~ flow.



**Jean Salkild** was born and raised in Swansea, graduated from Swansea University. After retiring from teaching, she contributed to many publications, including *The Seventh Quarry*.

**진 샬킬드:** 스완시 출신. Swansea University를 졸업. 교사로서 은퇴 후 *The Seventh Quarry*를 비롯한 여러 서적의 출판에 헌신함.

# 조개 줍는 사람들

진 샬킬드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회색 땅이 회색 물과  
만나는 그곳에서, 살을 에는 바람  
막으려 모직 옷 커켜이

끼어 입고 조개 줍는 사람들을  
나는 본다. 새벽 수평선을  
잠 깨우며, 힘들게 시작하는 하루에

새 생명을 부여하며, 그들은 짠 늪지대와  
조수의 개울 사이 안전한 길로  
지나간다. 썰물이 되면

갈고리와 어레미로 강어귀의  
파도가 쓸고 간 부드러운 모래톱 속  
조개 서식지를 파헤친다.

이곳에서 삶은 왔다~가고~  
왔다~가는 조수를 따라 움직인다.

## KOREAN TRANSLATORS

**Rachel S. Rhee** is a writer and translator of Korean and English poetry. Her work has appeared in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The Seventh Quarry*, *Shabdagucha*, *The Paterson Literary Review*, and *Cyclamens and Swords*. She was the primary translator for an international poetry anthology *Bridging the Waters* (2013) and is a member of the National Writers Union. She received two awards from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for translation and for original poetry. She currently works as a psychotherapist in Pennsylvania.

**레이철 S. 리**: 시카고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이스턴대학에서 카운슬링으로 석사학위. 영어로 시를 쓰고 한국시와 영어시를 번역함. 그녀의 번역 작품은 「해외문학」과 시전문지인 영국의 「The Seventh Quarry」 인도의 「Shabdagucha」 미국의 「The Paterson Literary Review」, 그리고 이스라엘의 「Cyclamens and Swords」 등의 잡지에 게재되었음. 국제 시선집 《한미 현대시》(Bridging the Waters=물 위에 다리 놓기) (2013)의 주 번역가로 참여했으며 National Writers Union의 회원임. 「해외문학」에서 번역상과 시부문 신인 문학상을 수상함.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서 심리치료사로 재직 중.

**Kyung Hwa Rhee** earned a B.A. in Library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in Korea. She has been the Korean language consultant for the translator Rachel S. Rhee, her daughter, since 2000. She currently works as a realtor in Michigan.

: 연세대학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졸업. 주로 한국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중점적으로 하여 번역가인 딸 Rachel S. Rhee와 공동 번역자로

일해 음. 현재 부동산 에이전트로 미시간 주에 거주하고 있다.

**Kyung-Nyun Kim Richards** is a poet, essayist, and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Korean born, she has lived in the US since 1967 and writes both in Korean and English. Her translations include *Dictée* (by Theresa H-K Cha), *Sky, Wind, and Stars* (by Yun Dong-Ju), and *The Love of Dunhuang* (by Yun Humyong). Her original work was collected in *Snail* (in Korean). A recipient of The Top Prize in Poetry Translation from The Korea Times Translation Contest (1996) and the 39th Translation Award from PEN Korea (2006). E-mail: richards kyungnyun@gmail.com

**김경년**(Kyung-Nyun Kim Richards): 서울에서 출생한 시인이며 수필가, 그리고 한영문학 번역가. 김 시인은 UC Berkeley대학교 교수이며 「해외문학」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 그리고 해외문인협회 회원. 김 시인은 시집 「달팽이가 그어놓은 작은 점선」이 있으며 새 시집을 준비 중이다. 번역서로는 윤동주 시집 “별 헤는 밤” “Sky, Wind, and Stars”, 김승희 시집 “I WANT TO HIJACK AN AIRPLANE” 등 다수. 1996년 The Korea Times 현대문학 번역상(시부문), 2006년 한국 국제펜 문학상을 수상했음.